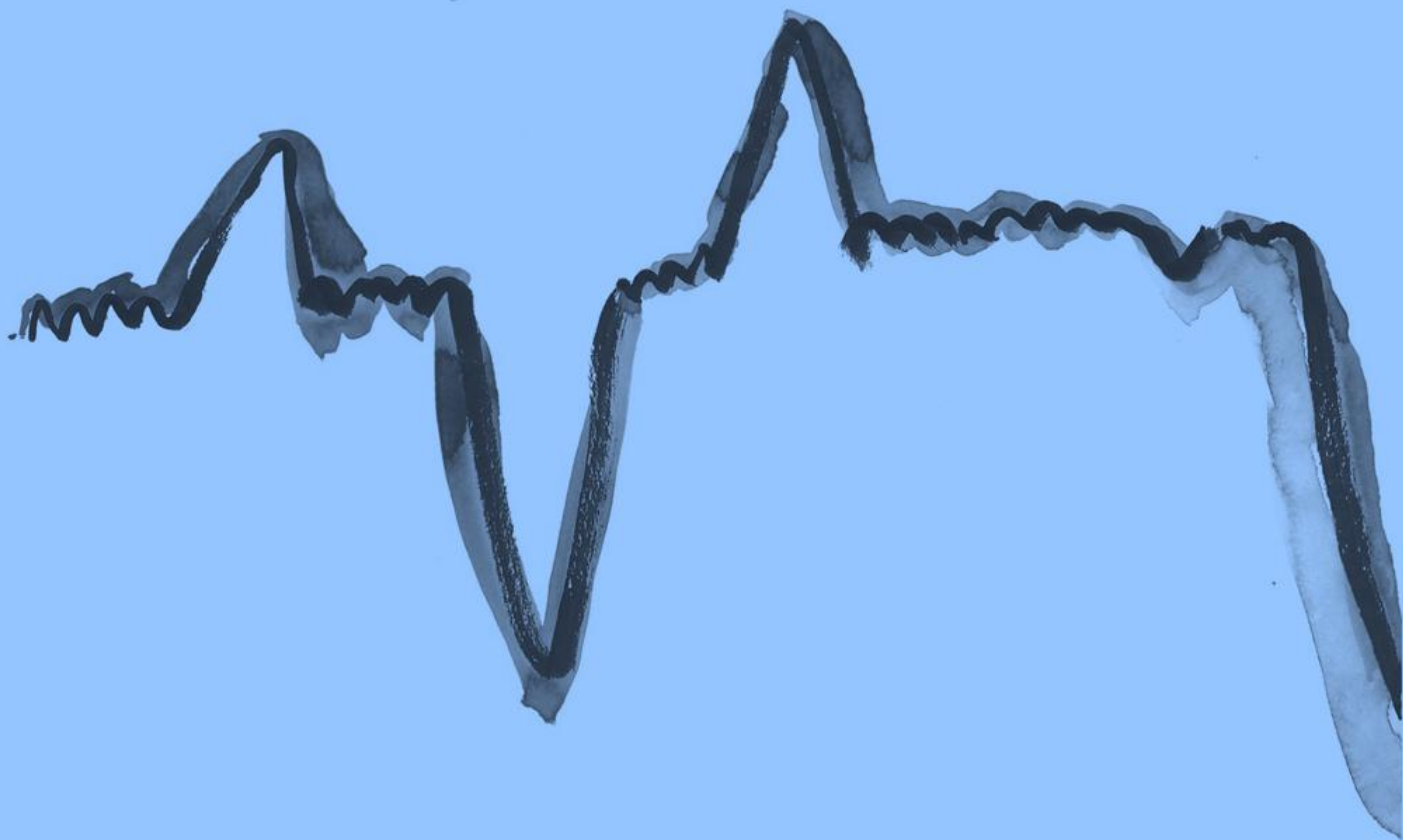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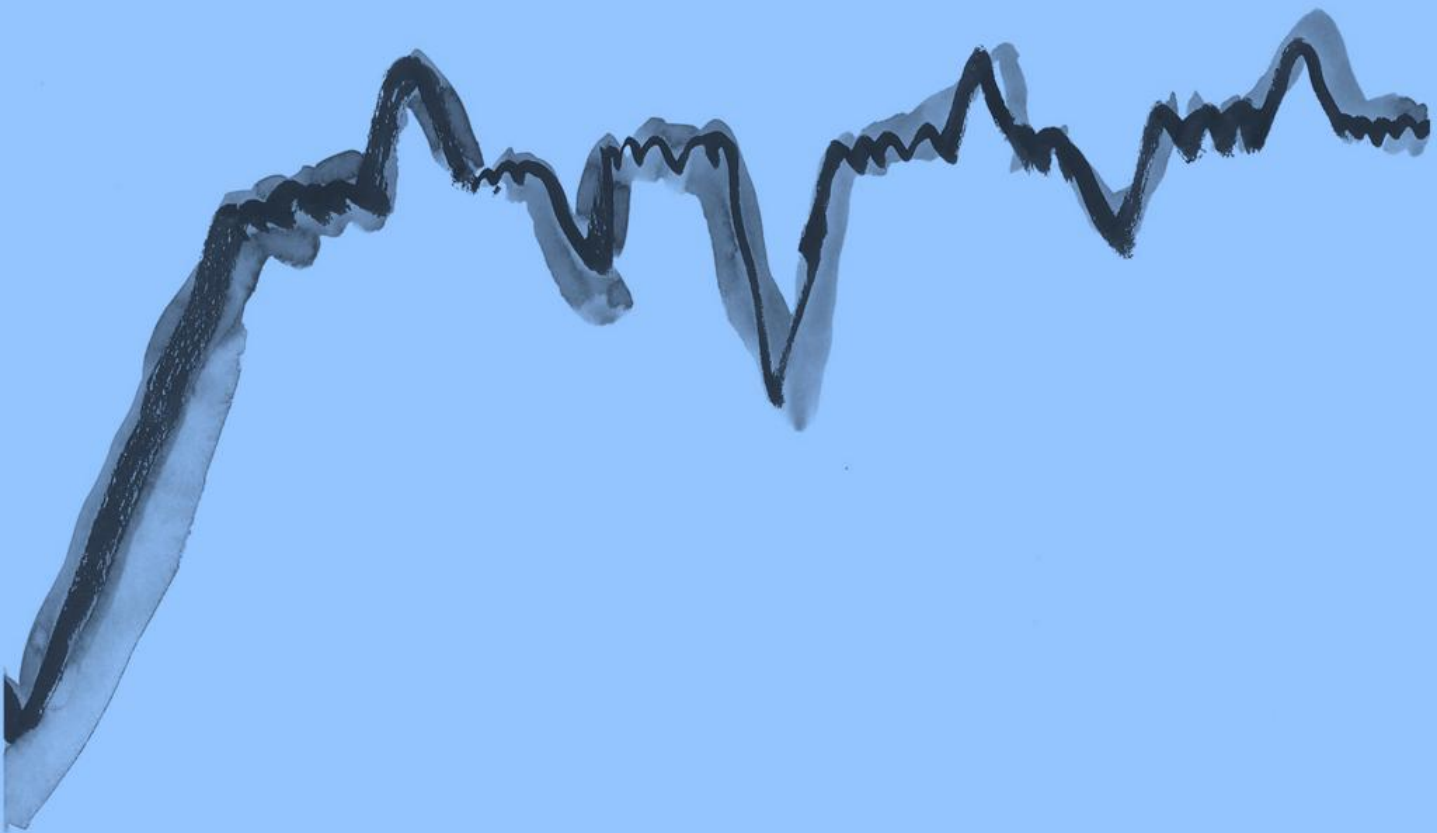
kutet's



TAXI







[교실 속 그림책] 꾸뚇의 택시

2016년 12월 20일 초판발행 2016-00033

| 지은이 | 김유송

| 지도 및 제작 | 이현아

| 펴낸곳 | 교육미술관 통로

| 홈페이지 | www.museum-tongro.com

| ISBN | 979-11-87790-18-1 75810 : 비매품

| 총서명 | 교실 속 그림책

| 세트번호 | 979-11-957446-5-7 (세트) 75810

이 책의 저작권은 지은이 김유송과 교육미술관 통로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kutet's

TAXI!

작가 소개

나는 서울 강일 초등학교 1학년 8반 김유송이야.
8월 달에 인도네시아를 갔다 오고 이야기를 만들었어.

처음에는 이야기를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었는데
이현아 선생님이 책 만들면 좋을 것 같다고 하시면서
“가까이 가지 마세요”라는 책을 주어 도움이 많이 되었어.

발리에 가서 여러 곳을 구경했어.
그 중에 차를 태워주시는 ‘꾸똥’이라는 아저씨의 이야기를 쓰고, 느낌을 더했지.

작가의 말

이 그림책은 2016년 여름에 인도네시아 발리에 갔다 온 뒤, 만들어진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만 아는 이 일을 책으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입니다. 여행을 할 때, 가난한 사람을 보게 된다면 그들을 기쁘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발리에서는 한국과 달리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발리에는 어수룩한 옷을 입고 TAXI를 탈 거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한 달 동안 차를 태워줬던 꾸뚓 아저씨도 원래는 길거리에 있는 그 사람들 중 한 명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는 독자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좋은 환경에 살지만, 가난한 꾸뚓씨도 우리와 다르지 않아.”

추천의 글

단이 김유담 작가 그리고 강이 김유송 작가와 함께 [교실 속 그림책]의 이야기를 이어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최지윤 작가가 그림책 '가까이 가지 마세요'를 통해서 전해준 감동이 두 자매에게로 흘러가서 또 하나의 이야기 싹을 피워냈습니다.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의 우붓, 서로 다른 장소에서 만난 장면이지만 어린이작가들은 같은 마음으로 작은 곳에 따뜻한 시선을 주었습니다. 한 권의 그림책을 완성하기 위해 여름날 우붓에서 만난 장면과 아이들을 가슴 속에서 꺼내어 뜨겁게 쓰고 그려낸 두 작가의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조셉 캠벨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읽어라. 그 속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확인하라'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두 작가의 이야기가 또 다른 독자들로 하여금 여행지에서 만났던 작고 따뜻한 장면을 떠올리게 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게 하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작은 한 권의 책을 시작으로 두 자매 작가가 평생 이어나갈 무궁무진한 창작의 세계를 응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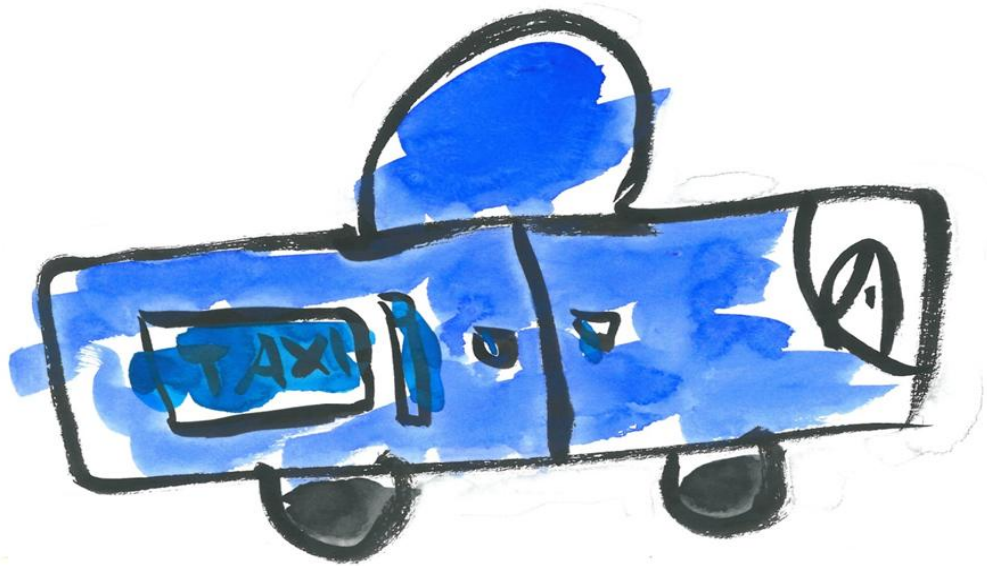
추천의 글

여행을 많이 해 보지는 않았지만, 아이들은 언제나 그들의 시선이 닿는 곳에 오래 눈길을 줍니다. 어른의 눈에는 당연해 보이는 것들도 이들에게는 낯설고, 신기하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어떤 것이기도 하지요.

'가이드'나 '드라이버' 혹은 거리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받아야만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유송이는 그들과 이어진 그들의 가족과 친구를 생각하는 아이입니다. 가족과 친구를 가진 이들이 낯선 사람들에게서 받는 차가운 시선을 유송이는 무척 크게 느꼈습니다. 대부분 '손님'이었을 유송이가 여태 받아왔던 따뜻한 시선이나 부드러운 말투와는 너무나 달랐을테니까요. 제가 던진 시선을 돌이켜 보았고, 제 입에서 나간 말투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러지 않았다고 자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유송이의 바람처럼, 우리를 도와주었던 많은 꾸뽀씨들이 따뜻한 말과 눈길을 받는 세상을 꿈꿉니다. 여행지에서의 아이스크림만큼이나 달콤한 우리들의 시선을 누군가는 애타게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2016년 12월 7일
엄마 조혜리



꾸뚛씨는 한 달 동안 발리, 우붓에서 우리에게 차를 태워주기로 한 아저씨다.



꾸뚛씨를 처음 만났을 때, 나는 꾸뚛씨 자동차 주머니를 열어보았다.

거기에는 TAXI라는 낱말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없을 때는 택시를 하나보다 생각했다.



어느 날, 우리는 우붓 시내에 놀러 나갔다.
예쁜 옷도 사고, 장난감도 샀다.



시내를 구경하고 있는데 어수룩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을 걸었다.



우리는

귀찮은 표정으로

안타다고 했다.

“우리 택시 안타요!”



“아이구, 귀찮아”



다른 사람들도

무시하는 표정으로 대답했다

우리는 시내 구경을 마치고 꾸뚏씨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꾸뜯씨도 다시 보니.

어수룩한 옷을 입고 있었다



“TAXI?”



우리가 없었다면 꾸뻏씨도 지금 시내에서 “TAXI?”라고 물었을 것이다.

“안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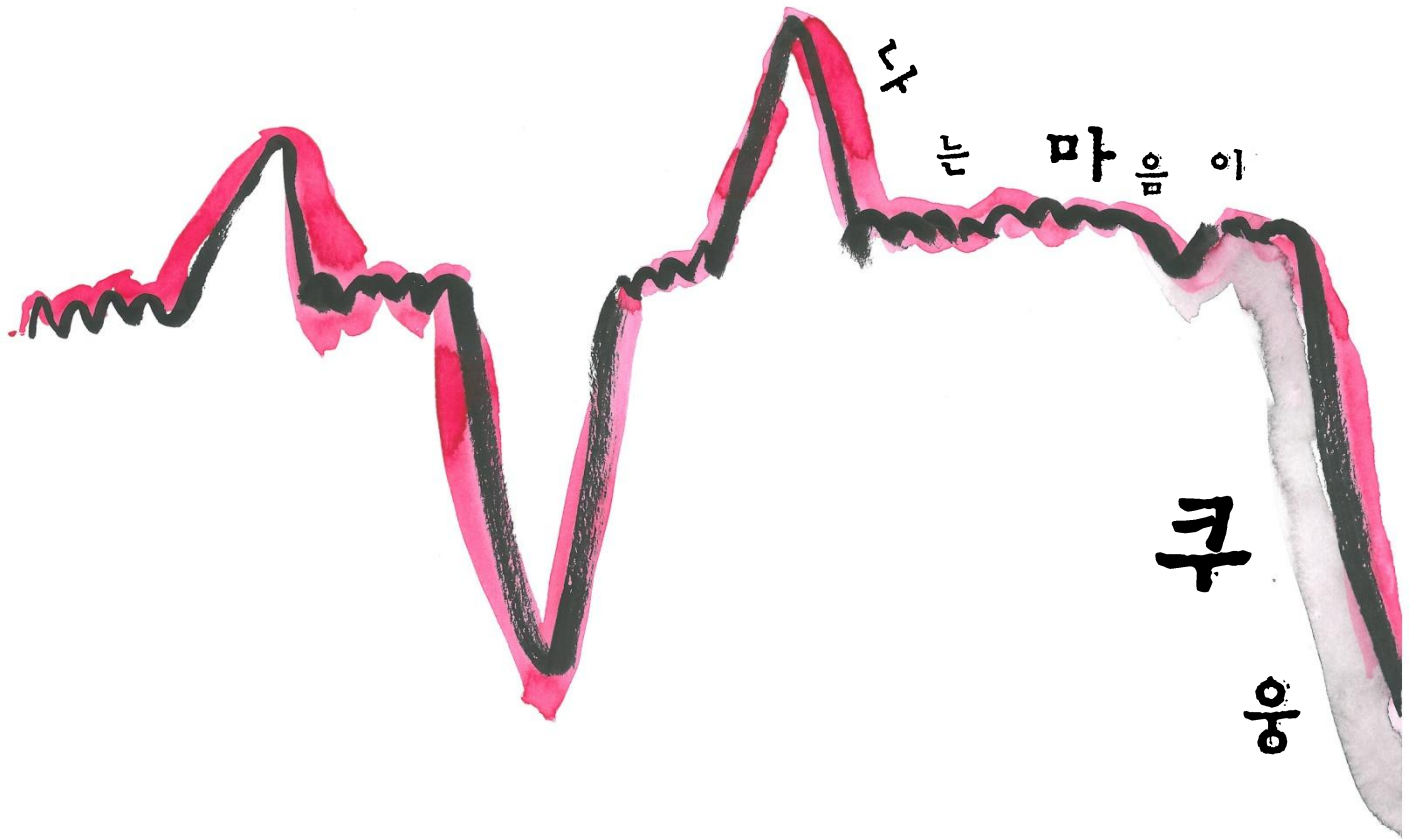
사람들은 귀찮고 무시하는 표정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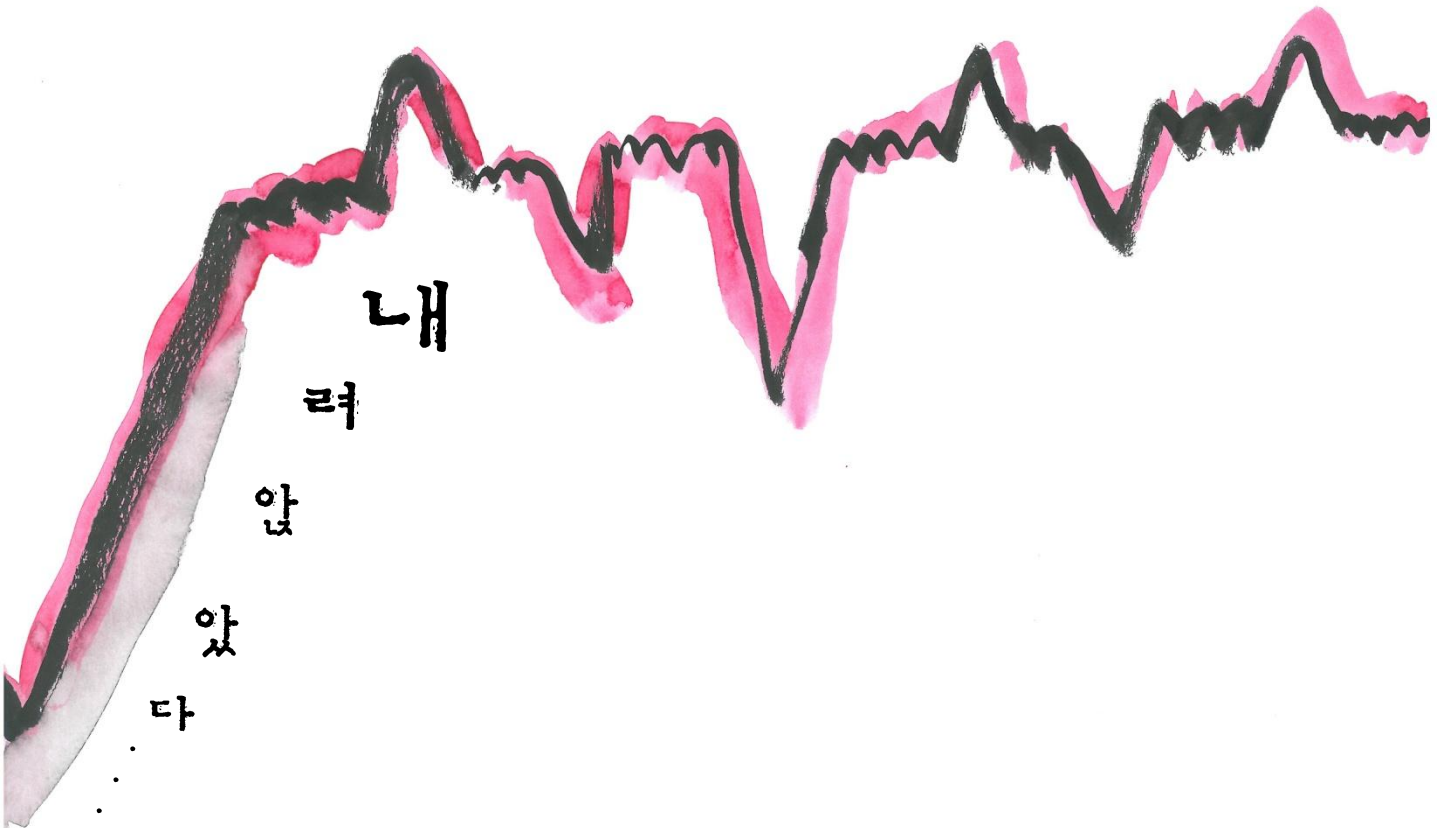
“귀찮게!”

꾸뚝씨에게

대답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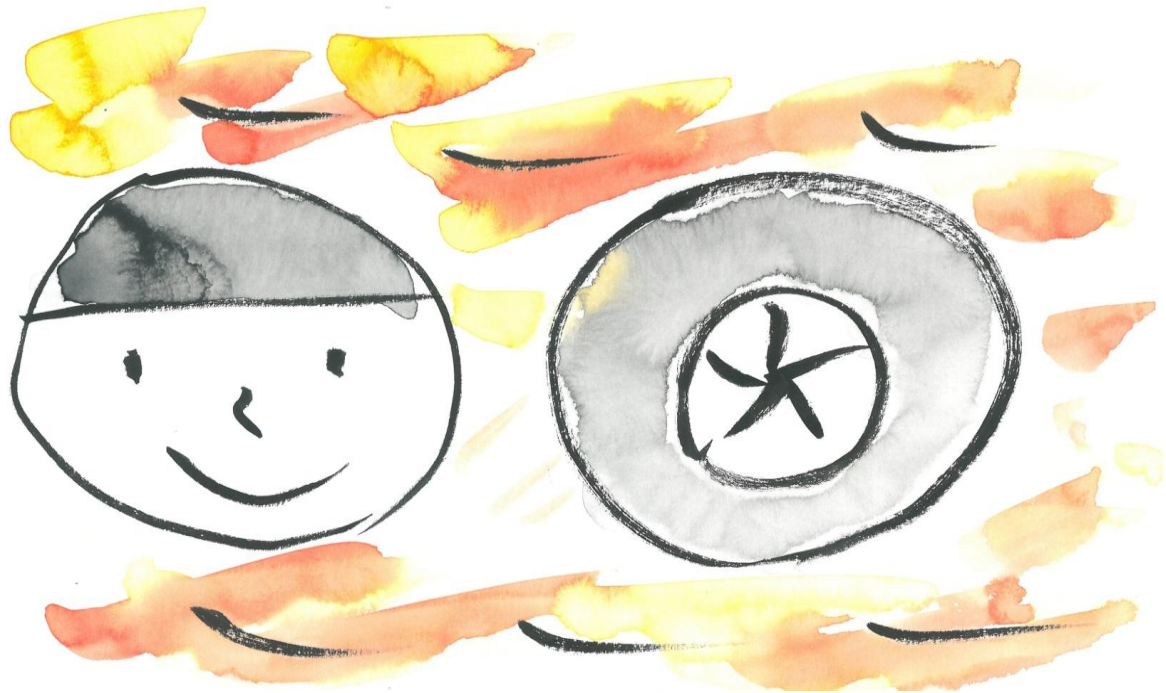
다

았

안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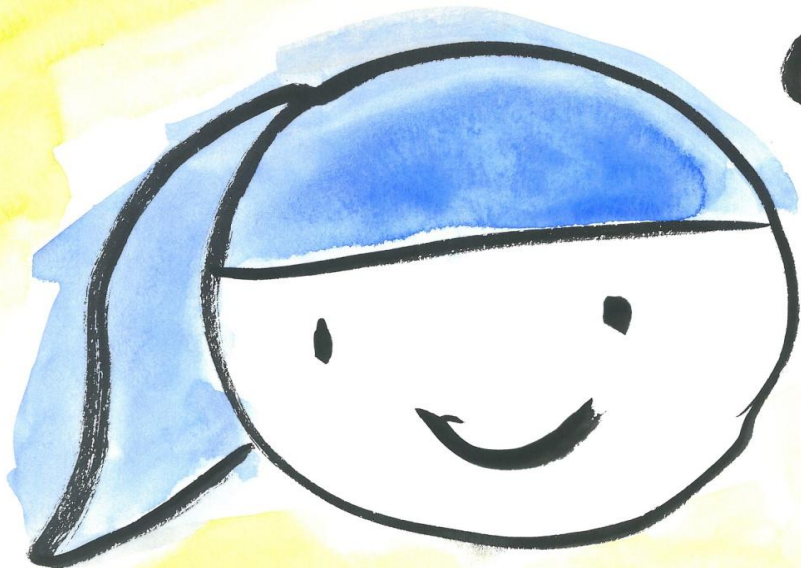
내



꾸똥씨는 우리에게 친절했고,
부드럽게 운전을 잘 하는 아저씨다.



그 좋은 아저씨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 받는 것이 싫었다.



OK

마음과 말 모두 친절한 사람들이
택시아저씨에게 대답하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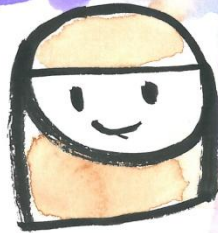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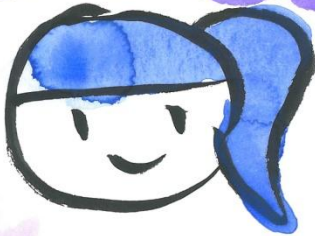
TAXI?

그러면 꾸뽏씨는 환하게 미소 지으며 또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 것이다.

“TAXI?”



"TAXI?"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
꾸뚝의 택시 [전자자료] / 지은이: 김유송
서울 : 교육미술관통로, 2016

전자책 책

ISBN 979-11-87790-18-1 75810 : 비매품

창작 그림책[創作--冊]

813.8-KDC6

CIP2016022904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 (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r>)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IP제어번호 CIP2016007088)

Philosoph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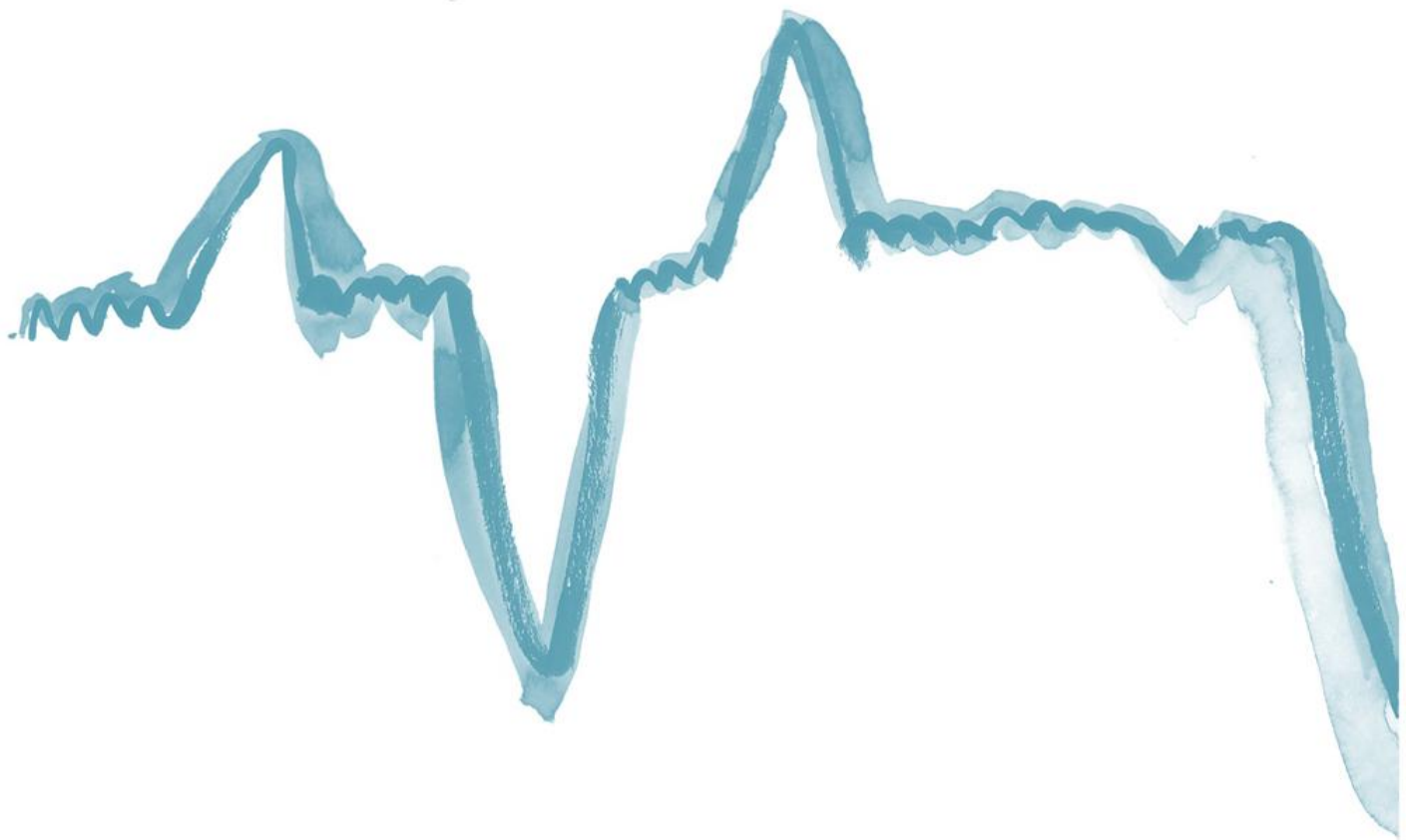
[통로, 스며 흐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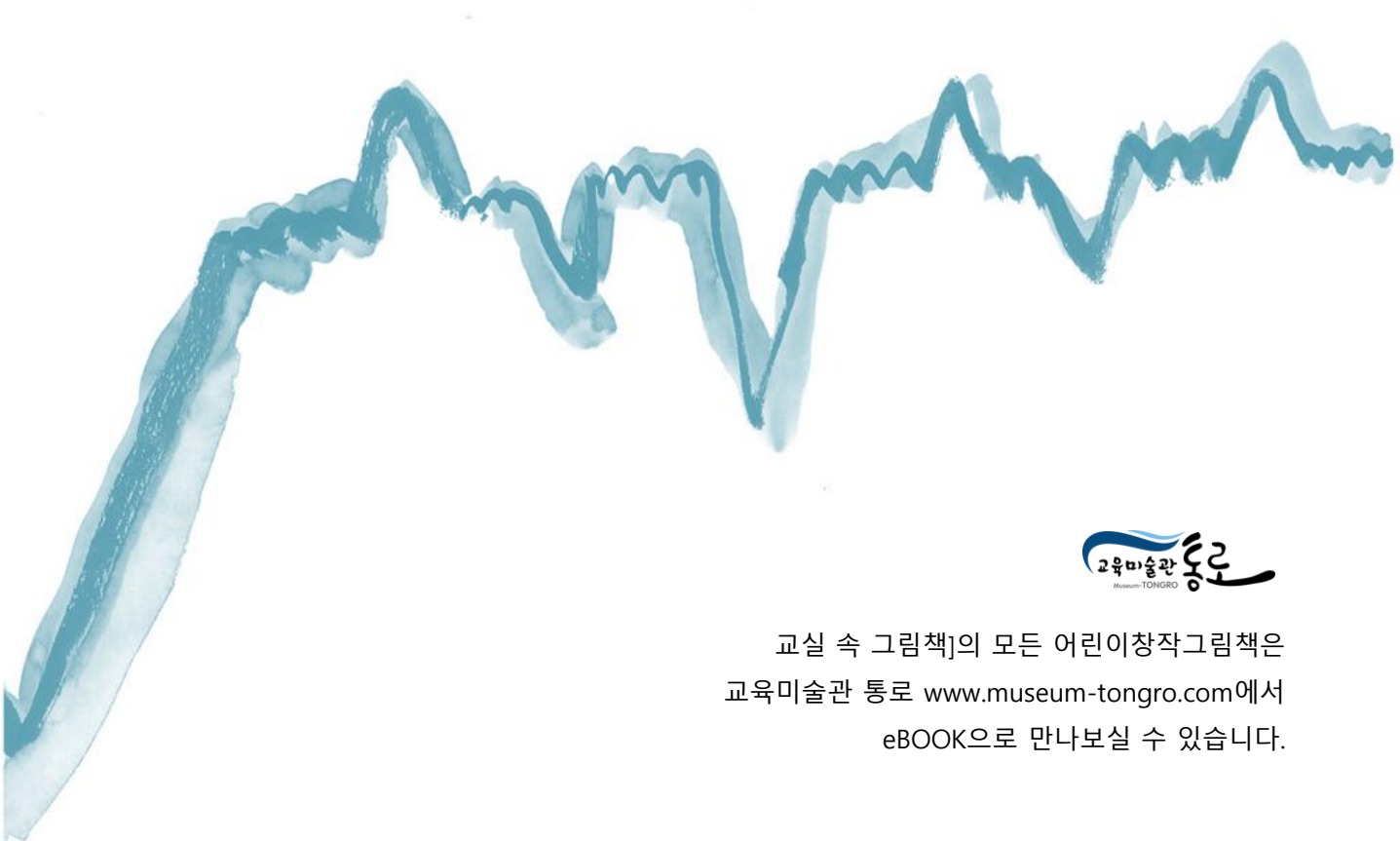
1. 흘러가다

교육미술관 통로는 내가 담아낼 수 있는 것보다 더 풍요로운 아름다움을 흘려보내는 연결통로(헨리나우웬, 2011)가 되고자 합니다.

2. 스며들다

교육미술관 통로를 통해 흘러가는 선한 영향력이 아이들의 마음에 시와 그림이 되어 스며들기를 소망합니다.





교실 속 그림책]의 모든 어린이창작그림책은
교육미술관 통로 www.museum-tongro.com에서
eBOOK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비대품

75810



9 791198 744688

ISBN 979-11-957446-8-8 (PDF)
ISBN 979-11-957446-5-7 (세트)